



리카르도



김광철



nodak

리카르도 말라카스·김광철 씨 등 아티스트들
사진·영상·춤·음악으로 관객들과 소통·교감

퍼포먼스 아트 발표전 내일 광주 씨디아트홀

상상의 세계, 몸으로 말하다

현대미술 장르 중 하나인 퍼포먼스 아트(performance art)는 붓과 캔버스를 통해 회화를 그리듯 예술가들이 자신의 신체를 활용해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르다.

언뜻 공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극, 무용, 노래, 마임 등이 일정한 틀을 바탕으로 무대에 올려지는 것과 달리 퍼포먼스 아트는 정해진 각본 없이 관객과 소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아티스트 고(故) 백남준도 1960년대 독일에서 수많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요셉 보이스와 인연을 맺는 등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광주에서 국내·외 퍼포먼스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퍼포먼스 아트 발표전이 열린다.

광주 출신 퍼포먼스 아티스트 김광철씨와 문화예술단체 '시(禪)공간 조합'은 11일 오후 5시 광주시 북구 신안동에 있는 소극장 씨디아트홀에서 '이것이 현대미술' 시리즈 1탄 '자유표현 : 리카르도와 함께'를 주제로 퍼포먼스 아트 발표전을 진행한다.

'이것이 현대미술' 시리즈는 시공간 조합이 시민들에게 현대미술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발표전에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카르도 말라카스(Ricardo Matlakas)와 김광철씨,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지원, nodak, 광주의 박경화씨 등이 참여한다.

'자유표현'이라는 주제처럼 작가들은 일정한 컨셉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표현하는 것이 퍼포먼스 아트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관객들은 선입견 없이 퍼포먼스를 관람하고,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다. 사유와 감동, 그리고 상상력이 퍼포먼스 아트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영상, 소리, 인터넷 등 뉴미디어가 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nodak은 'in-teR-Red'라는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극단과 이분법이 지배하는 사회의 경계지점에서 가지게 되는 권력과 아집, 오만, 자기모순에 대한 이야기다.

박지원씨는 물질 만능으로 인해 인간성이 상실된 세계 속에서 소통과 교감에 대한 갈망과 한계를 표현한 'Modern Blues'를 선보인다.

세 번째 무대는 김광철씨의 'What do you want, I will give it to you' 퍼포먼스다. 2012 광주 국제미디어퍼포먼스 아트페스티벌 등을 기획했던 김씨는 '정치적 트릭'을 주제로 사람들의 정치적 권력에 대한 회구와 이를 이용하는 권력집단의 구조 등을 표현한다.

소설가이자 퍼포먼스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박경화씨는 'Line : 어항'을 주제로 가냘픈 끈을 이용해 위태롭고 고독한 아우성과 허무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마지막은 리카르도와 첼리스트 함주희씨의 'Sub specie aeternitas(불멸의 시아 안에서)'가 장식한다. 리카르도는 인간의 조건을 탐험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함주희씨는 첼로 연주와 함께 제임스 윌버의 책을 낭독할 예정이다.

퍼포먼스가 끝나고 나서는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행사에 대한 생각들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김광철, 리카르도의 회화 작품도 만날 수 있다. 행사 후 전시 작품과 작품에 영감을 줬던 소도구들을 판매하는 코너도 준비돼 있다.

시공간은 공간이 필요한 문화 생산자와 문화에 목마른 소비자를 이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연극 등 공연, 전시 및 작품발표, 강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획을 하고 있다. 입장료는 1만5000원(예매 1만원)이다. 문의 010-5699-800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랑합니다-축복'

당신을 축복합니다

박유자전, 29일까지 일곡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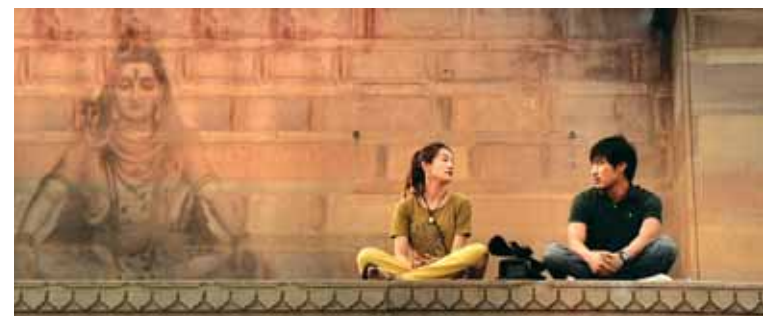
화폭 속 해바라기는 색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을 쫓던 그 열정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그 안에 희망과도 같은 작은 씨앗들이 춤추며 박혔다. 해바라기는 그 많은 희망들을 남기기 위해 지난 여름 태양을 향했다.

해바라기를 통해 희망과 사랑을 그리는 서양화가 박유자씨가 오는 29일까지 일곡갤러리에서 '사랑합니다'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사랑합니다' 연작과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연작을 중심으로 모두 3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작품 모두 50호, 100호 크기의 대작이다.

박씨는 해바라기 연작 '사랑합니다'를 통해 사람과 사랑 이야기를 전한다. 화폭을 채우고 있는 무수히 많은 동그라미 형태의 이미지들로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일방적인 사랑과 존경이다.

그림에 녹아든 '인(사람인)'자도 더불어 사는 세상과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결국 사랑은 새로운 희망이자 축복, 행복이 된다. 사랑을 속삭이듯 은은한 색조로 그려진 해바라기 위에 강하게 채색된 또 다른 동그라미들은 희망과 축복에 대한 믿음을 증폭시킨다. 박씨는 조선대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13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150차례 단체전에 참여했다. 환경미술협회, 예뵘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410-6889.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영화 현장 열정과 고민 듣기

광주극장 12일 '시바, 인생을 던져' 관객과 대화

인도에서 벌어지는 4인 남자의 좌충우돌 인도방랑기를 담고 있는 '시바, 인생을 던져' 제작진이 관객들을 만난다.

광주극장은 영화를 제작한 진모영, 송주하 PD를 초청, 12일 오후 1시20분 영화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를 마련한다.

'시바, 인생을 던져'는 '마지막 인력거' 등 환경생 인도를 사랑하고 독립다큐를 찍어온 고(故) 이성규 감독의 유작으로 제작에 참여한 두 PD의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생생한 영화 현장의 열정과 고민을 듣는 시간이 될 것이다.

리얼한 인도를 담아보았다며 무척대고 인도로 떠난 PD '병태'와 그의 파트너가 되어 인도에 온 날라리 촬영감독 '최갑목', 취업에 실패하고 허무맹랑하게 인도로 도망쳐 온 '한나', 남편과 아들의 무관심에 홀연히 인도로 가출한 '순영'이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2기 이사진 선임...9명 교체

광주문화재단 2기 이사진이 꾸러졌다. 재단 운영과 관련, 책임분이 불거졌던 1기 이사진은 3명이 연임되고 나머지 9명은 교체됐다.

9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장이 선임한다'는 광주문화재단 정관에 따라 강은태 이사장이 지난해 12월19일 제1기 이사회에서

추천된 인사 중 선임직 이사 12명과 감사 1명을 선임했다.

이사진 가운데 황영성(광주시립미술관장), 김포천(전 광주공연예술재단 이사장), 김하림(조선대 교수)씨는 연임됐고 이미란(소설가), 박윤모(광주시립극단장), 성현출(광주문화원연합회 회장), 송진희(호남대 교수), 임해철(호남신학대 교수) 씨 등 문화

예술계 인사 8명과 채정기(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공동의장), 지형원(문화풍 대표), 최선희(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장), 최명숙(현대병원장)씨가 새로 위촉됐다.

감사에는 김정호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가 선임됐다. 재단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광주시장, 광주시문화정책실장, 재단 대표이사) 3명과 선임직 이사 1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16년 12월31일까지다.

광주문화재단은 2기 이사진들의 임명장 수여와 등기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사회를 소집해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문화재단은 노성태 전 대표이사의 연임 포기로 광주시 문화정책실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단 개선 T/F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광주문화재단의 조직과 기능 등 전반을 점검, 발전방안을 강구한 뒤 대표이사 인선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람기자 boram@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막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형 탈린트 이영후